

# 요즘 선수, 영상 분석 통해 키운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옆에서 치는 것이니까 완벽해 보이잖아. 힘을 모으러 갈 때 어때? 자세는 완벽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타구가 안 날아가잖아?”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훈련이 끝나고 나면 ‘토론’ 시간이 펼쳐진다. 선수와 코치가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시간. 요즘 세대에 맞는 KIA의 전력 강화 방식이다.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KIA 야수진은 3조로 나눠 수비·타격·주루 등 로테이션을 돌면서 훈련을 한다. 5명이 한 조로 움직이면서 함께 구슬땀을 흘린 뒤 마지막 ‘엑스트라’ 훈련이 진행된다.

타격·주루·수비 코치들이 꼭 짚어서 한 명을 선택해 훈련 외 훈련을 한다.

코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대 1로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은 집중력 있게 좋았던 부분을 더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보이는 곳에서 진행되는 엑스트라 훈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더 중요한 훈련이 이뤄진다.

엑스트라 훈련 시간에 전력 분석팀은 다각도로 선수들의 영상을 촬영한다.

그라운드에서의 훈련이 마무리되면 선수, 담당 코치, 전력분석 코치가 전력분석실에 모인다.

엑스트라 훈련 장면 영상 촬영  
선수·코치 등 전력분석실 모여  
영상 보며 선수들 움직임 확인  
함께 문제점 토론하고 답 찾자

이들은 조금 전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물론 개선해야 할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 중 하나다.

‘영상’에 익숙한 요즘 선수들에게 숫자와 말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설명을 해주는 만큼 엑스트라 훈련 효과가 크다. 선수 입장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코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코치 입장에서는 선수가 문제점을 바로 받아들이니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좋다.

전력분석팀 입장에서도 선수들에게 먼저 질문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함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엑스트라 훈련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확인한 선수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얻은 힌트를 가지고 남은 캠프에서 기량 향상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훈련 막바지 다시 한번 영상 분석을 하면서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파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파워’ 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의 홍세완 코치(왼쪽부터), 정해원, 조승범 코치, 이범호 코치가 엑스트라 훈련이 끝난 뒤 촬영한 훈련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에 빠졌던 내야수 정해원도 영상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얻었다.

정해원은 “문제점에 대해 조금 느끼기는 했었는데 코치님들의 말 듣는 걸로는 확신이 없었다. 영상

을 보면 바로 보이니까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됐다. 문제점을 찾았다. 모르는 게 제일 답답한 것이다”며 “영상을 통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좋을 때 영상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보이는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호랑이 군단’이 실력을 키우고 있다.

/wool@kwangju.co.kr

## “선수들 느낌과 영상은 많이 달라 데이터는 단순하게 대화는 많이”

조승범 전력분석 코치

“단순하게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KIA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야구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키워드다.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 영상도 넘친다. KIA도 호크아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수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테스트를 새로 시도하는 등 데이터 야구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는 엑스트라 훈련 뒤 바로 훈련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데이터가 넘치면서 전력분석팀도 덩달아 바빠졌다. 많은 데이터를 단순화해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선수들이 ‘확실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조승범(사진) 전력분석 코치는 “선수들에게 지금은 정보 바다의 시대다. 다양한 데이터와 차트, 영상이 있다. 접하기 쉬우니까 어설픈게 알고 다가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단순한 시켜서, 단순하게 말해주는 게 내 일이다”고 이야기했다.

요즘 변화에 맞게 ‘영상’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조 코치는 “선수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보면 많이 달라진다.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영상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다. 느낌은 정확하지 않은데 영상을 보면 이해가니까 설명하기 쉽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데이터를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조 코치는 ‘대화’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잘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선수마다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알려주려 한다. 이번 캠프에서 선수들 개인의 데이터를 봤는데 빈칸을 만들어놨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선수들이 직접 잘하는 점이 뭔지, 강점은 뭔지, 안 되는 게 뭔지, 어떤 선수인지 알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 하



기위한 방안이다”며 “선수들에게 설명한 키워드 두 가지는 매 타인지와 디자인이다.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강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적어 오면 다시 미팅하기로 했다.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적어올지, 어떤 선수가 올지 기대된다”고 웃었다.

또 “질문을 많이 한다. 직접적으로 내 생각에 의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자주 질문을 던진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같이 공감하고, 영상-데이터를 주면서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화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다고 말하는 조 코치.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무리캠프가 그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김호영, 이우성, 한승택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조 코치를 바쁘게 하고 있다.

조 코치는 “당장 극적으로 선수가 변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어떤 선수가 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가는 게 좋다. 선수마다 운동 능력도 신체 구조도 다르니까 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편이다”며 “신인 선수들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때가 분석팀이 선수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시즌에는 상대 팀과 게임하기 바쁘다. 남은 캠프에서 선수들과 유익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 ‘셔틀콕 여왕’ 안세영 39일 만에 복귀전 2-0 완승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이 39일 만에 코트로 돌아왔다.

안세영은 15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일본 마스터스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바이어우보(대만)를 2-0(22-20 21-13)으로 꺾었다.

안세영의 실전 복귀는 지난달 7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단식 결승전 이후 39일 만이다.

안세영은 특유의 끈기를 선보였다. 1세트 16-20으로 끌려가며 첫판을 내주나 싶었으나 6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경기 감각을 되찾은 안세영은 2세트 8-9에서 7차례 연속 포인트를 따내 경기를 두 세트 만에 끝냈다. /연합뉴스

## 문동주, APBC 개막 호주전 선발 등판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1차전 류중일 감독 “매 게임에 최선”

문동주(19·한화 이글스)가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2023 개막전인 호주와 대결에 나선 선발투수로 낙점됐다.

문동주는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치르는 APBC 예선 1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류중일 한국 대표팀 감독은 1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문동주가 컨디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발로 냈다”고 설명하며 “아시안게임 때처럼 잘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지난달 대만과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6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로 한국의 4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입단 2년 차 영건 문동주는 올해 정규시즌 23경기에서 8승 8패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하며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투수 최초로 시속 160km의 벽을 깨며 KBO리그의 새 이정표를 세웠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 국제용 투수임도 증명했다.

류 감독은 “문동주의 주 무기는 강속구와 나차 큰 커브라고 생각한다”며 “(첫 상대인) 호주를 이겨야 결승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상대 전력 분석을 잘해서 매 게임, 매 이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대표팀은 호주프로야구리그(ABL) 우완투수 브로디 쿠퍼-바살라키스(22·브리즈번 밴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한국 야구대표팀 문동주가 15일 도쿄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듣고 있다. /연합뉴스

츠)를 선발로 내세웠다.

키 180cm의 쿠퍼-바살라키스는 2023시즌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 리그에서 18경기 27.1이닝 1승 3패 6세이브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했다. 선발 등판은 1경기에 그쳤다.

전문 선발 요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호주 대표팀

은 한국전을 ‘불펜 데이’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전에서도 선발 잭 올콜리니가 2이닝만 던지게 한 뒤 불펜 투수 8명을 마운드에 올리는 ‘벌떼 작전’을 펼쳤다. 당시 한국은 7-8로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연합뉴스

## MLB 사무국, ‘처남·매제’ 이정후·고우석 신분조회 요청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와 고우석(25·LG 트윈스)의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신분조회가 실제 영입 제의를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정후가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으로 MLB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 이번 신분조회 의미가 작지 않다.

고우석은 당장 미국 진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빅리그 진출의 꿈은 품고 있다.

이정후의 여동생이 고우석과 결혼해 둘은 처남과 매제 사이다. 이번 MLB 신분조회가 더 화제를 모으는 이유다.

신분조회는 최근 연일 미국 현지 언론에 ‘2024년 MLB에서 볼 선수’로 언급되고 있다.

15일에도 ESPN은 자유계약선수(FA) 야수 부문 상위 12명 중 한 명으로 이정후를 소개하면서 “이정후는 주신수 이후 가장 재능있는 한국인 야수다. 그의 나이는 고작 25세로 KBO리그에서 뛴 때 매년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 삼진을 거의 던지지 않았으며 발목 부상에도 외야 수비를 잘할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현역 KBO리그 최고 타자다.

2017년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올해까지 88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898을 기록했다.

KBO리그 3000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 최고 타율을 자랑한다.

올 시즌에는 발목 부상 탓에 86경기에만 출전하면서 타율 0.318, 6홈런, 45타점을 기록했다.

키움 이 이미 이정후의 MLB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터라, 이정후는 적절한 시점에 포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후와 동갑인 고우석도 2017년 KBO리그에 데뷔해 올해까지 354경기에 등판해 19승 26패 139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3.18을 올렸다.

올 시즌에는 부상 탓에 3승 8패 15세이브 평균자책점 3.68로 고전했다.

한편 이정후를 FA 야수 부문 상위 12명 중 한 명으로 꼽은 ESPN은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을 FA 순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